

# 타이, 방콕 석유저장시설 이전 명령

인구밀집 지역 벗어나 시외지역으로 ... 안전문제 우려한 정부조치

타이 정부가 안전문제를 고려해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방콕 소재 저장시설을 모두 시외로 이전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Shell, Caltex, Esso Petroleum 등 석유 메이저들은 새 저장시설 부지확보 등 대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타이 언론에 따르면, 탁신 치나왓 총리는 안전문제와 환경오염 우려 등을 들어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방콕 저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저장시설은 대부분 클롱 터이 등 방콕의 인구밀집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타이 정부는 그러나 PTT와 방착석유 등 국영 석유기업의 저장시설은 시외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프로민 랫수리멧 타이 에너지부 장관은 방콕 소재 석유 저장시설 이전 작업이 2004년 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며 이전비용은 전액 해당기업 부담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석유기업들이 저장시설 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이 정부가 이전비용을 일절 보전해주지 않기로 하자 다국적 석유기업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Shell 임원들은 석유 저장시설 이전 비용을 타이 정부가 보상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altex 타이 현지법인은 일단 방콕에서 2시간 거리의 라용주 맏타 곳에 있는 정유공장으로 석유를 옮기고 난 후 미국 본사와 중장기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tex 측은 2004년 1월까지 저장시설 이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비용으로 10억바트(3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Chemical Journal 2003/12/15>